

공동체마을 운동이 번져간다

동체대비 실천하는 새 신행 뿌리내려 자원봉사 후원회원 2만5천명 되는 곳도

정성훈 기자

사람을 비롯한 각종 불교계 복지시설이 불교공동체의 삶을 일깨우는 터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법흥사 연꽃마을과 광주 향림사, 연꽃마을 용인양로원, 치악산 소백새마을, 보리수마을, 치자마을, 부처님마을 등으로 적게는 7, 8명에서 많게는 1백여명이 한옥터리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며 따르는 생활을 일구고 있다.

법흥사 연꽃마을의 경우 지난 84년 버려진 아이를 키우기 시작한 이래 현재는 노인 47명, 학생 50명 장애인 20명 등 모두 1백21명이 한가족으로 생활하고 있다. 연꽃마을 용인양로원은 30명, 광주 향림사는 50여명이 국민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모두 학생들이다. 소백새마을은 고아 정박아 미혼모 무의탁 노인 등 2백여명이 이른다. 이들은 서로의 손발과 눈이 되어 주는 맑은 영혼으로 부처님마을을 이루고 있다.

3명의 미혼모와 4명의 노인들이 살고 있는 대구 보리수마을(원장 오정)은 그동안 불교적 관념에서 배척했던 미혼모들의 상처를 어우르고 새삼의 터전을 일구는 곳. 이곳의 노인들은 서류상 조건이 안맞아 양로원에 갈 수 없는 처지로 이곳에서 미혼모와 그들의 아기를 돌보며 한식구로 살아간다.

를 통해 부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의 문화공동체의 정형을 보여주고 있다.

또 서울 상계동과 미아동에서 결식노인 무료급식을 펼치고 있는 자비의집(회장 동광)은 부근 노인들의 사랑방 역할도 하고 있어 결식노인들의 외로움을 달래는 한편 지역사회 열린공간으로서의 의미도 살려내고 있는 곳이다.

이들 '마을'에서 생활하는 이들은 대부분 무의탁자이거나 지체부자유자 등 자활능력이 부족한 사람들로 이곳에서 자활의 기쁨을 마련하고 있다. 이같은 공동체의 삶은 서구적 개념의 사회복지제를 불교적 정서로 정착시키는 것은 물론 인간기초에서 수용할 수 없는 무의탁자들을 적극 받아들이는 비종교분야의 사회사업이라는 점에서 불교내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들의 공동체 생활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자원봉사자와 후원회원을 배놓을 수 없다. 이 또한 봉사활동이 봉사자들의 새로운 신행형태로 자리잡아가고 있어 주목된다.

'자비의집'의 경우 후원회원 8백명, 자원봉사자가 3백명이며, 매달 후원회비도 5백만원 가량 기탁되고 있다. 서울 광명영원회를 비롯 청주 군포에 노인무의탁원과 용인에 무료양로원을 운영하는 서울 연꽃마을(이사장 각현)은 후원회원이 2만5천명으로 가장 큰 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연꽃마을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매달 2천5백만원의 후원회비가 담지하고 있으며, 2백여명의 간병인 자원봉사자들이 노인인료를 돕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9월에는 불교자원봉사자연합회(회장 성덕, 방생선원 원장)가 결성해 자원봉사의 체계적 조직적 실시의 단초를 마련했다. 이 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는 4백여명에 이르며, 이들은 국립의료원 자광원 관음대비원 김음종합복지관 등에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전문복지단체로의 발전을 위해 자원봉사시민대학을 열어 호스피스 등 전문 자원봉사자들이 배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불교계 복지시설은 운영비 및 자원봉사 인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자원봉

사자연합회가 창립되지 21곳에서 자원봉사를 의뢰해준 정도이다. 자원봉사 내용은 근로봉사에서부터 방송모니터보고서 작성 전화상담 이미지 컴퓨터 자료입력 등 전문소양이 필요한 분야까지 다양하다. 특히 호스피스 방송모니터를 비교적 전문적인 사전교육이 필요한 분야의 자원봉사는 미미한 현실이다.

불교공동체 및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는 불교의 자비실천이라는 기본적인 이념을 현실화시킨다는 점에서 각광받고 있으며, 사회적 실천으로서의 의미도 큰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불교적 소양을 갖춘 전문인의 참여와 복지서비스의 질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중앙승가대 이경호 교수(불교사회복지학)는 "불교계 복지사업이 이제는 의식주 해결에서 정서적 교육적 측면이 고려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경전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불교사회의사범의 모형개발과 전문인 양성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24일, 성철스님 1주기 해인사 8만4천배기도

열반 1주기를 맞는 성철스님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성철스님 추모제가 오는 24일 오전 10시 해인사 큰법당에서 봉행된다.

해인사 백련암 백련문도회는 성철스님 1주기를 기리는 「남을 위해 기도합니다」 참회법회를 오는 17일 입재해 24일 해인사 백련암 고심원에서 봉행할 예정이다. 「남을 위해 기도

24일, 성철스님 1주기 해인사 8만4천배기도

한다」 법회는 성철스님의 영정을 모시고 7일 동안 모두 8만4천배 참회기도를 올리게 되는 행사이다.

한편 성철스님의 상좌인 백련암 원택스님은 지난 5일 미공개 성철스님 유품인 찬필도 서목록 1부, 묘엄스님에게 내린 사미니께 본 1부, 명치 45년 도리사 태조선원 동안거 성취 안거증서등과 청담스님과 도선사에서 1964년 같이 쓴 서원문 1부등을 공개했다.



○지난 7일 구인사에서 봉행된 추모제에는 2만여 사부대중이 동참 남대총스님의 법덕을 기렸다.

남대총 대종사 1주 추모제 2만 천태종도 법덕기려

천태종 제2대 종정 남대총 대종사 열반 1주기 추모법회가 지난 7일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에서 종단 스님들과 천태종도 등 2만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됐다.

도용 종정의 증령으로 진행된 이날 추모법회에서 정문대 총무원장은 추모사를 통해 「남대총 대종사는 관문사 건립, 역경사건 등 종단의 발전을 위해 힘을 아끼지 않으셨다」며 「스님의 유훈을 받들어 지금 진행중인 각 불사를 원만히 회향해 새 불교운동에 천태종도들이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해

다」고 당부했다.

한글불교교과위원회(이사장 한정섭) 주최 「제3회 법문대회 및 제1회 법사공수식」이 지난 3일 불교방송 3층 공개홀에서 개최된 최우수상에 「중생이 살아가는데 네가지 어려움」을 주제로 발표한 구자원씨가 선정됐다. 이번 법문대회에서는 지역에 선을 통과한 14명의 법사가 참가했다.

낙동강 연등 대법회 16일 을숙도서, 부불련주최

제4회 낙동강 연등대법회가 오는 16일 오후 1시 낙동강 하구인 을숙도 광장에서 열린다.

부산직할시 불교연합회(회장 정관)의 주최로 열리는 이번 연등대법회는 부처님의 자비사상과 불교도의 원력으로 사회를 맑고 청정케하고 남북통일을 기원하는데 뜻을 맞춰 진행될다. 아울러 부산의 경제, 문화, 체육발전의 전기가 될 2002년 아시안게임의 부산유치도 발원한다.

본 행사에 앞선 식전행사에 불자노래자랑, 연등 만들기 대회를 비롯 김중국, 장미하 등 불자연예인 초청공연이 펼쳐진

다. 이어 수륙대제와 기원법회, 유등행사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불자의 날」 제정 의정부시 회룡제서

의정부·양주불교사업연합회(회장 원산)가 주관한 남북통일기원 연등대법회가 지난 7일 의정부 시청 앞 청소년공원에서 봉행됐다.

의정부지역 문화재단 제9회 회룡 문화제행사 일환으로 열린 이날 법회에는 지역 사암스님을 비롯 시민들 5백여명이 동참, 남북평화통일과 민족화

2호부터 지면 대폭 달라 집니다

신문밖의 禪 등 신선한 기획 풍성한 읽을 거리

열린마당 : 교계 안팎의 주간 시사문제를 불교적 시각으로 진단분석.

인명

한국 불교 거름니기 캠페인

신행수첩 : 한주 동안 통합한 만한 신행 현장 안내

나의 수행일기 : 명사들의 신행에 얽힌 진솔한 수행담

보살행이 슬수는 현장 : 이타행을 하는 불자 및 승가를 밀착 취재한다.

내일을 여는 불자 : 불교의 미래를 열기 위해 밤 줄리는 불자들의 얘기를 듣는다.

신행단체 탐방 : 직장, 기업, 기관 불자회 탐방

신문 밖의 禪 : 삶의 현장에서 생활선을 조명한다.

목정에 교수가 쓰는 생활불교 : 용어중심의 교리를 생활속에 용해하여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체로 풀어낸다.

이주일의 법구 : 부처님의 제위가 풍기는 초기경전 <잡아함경>을 매주 한 구절씩 공부한다.

길을 묻는 이에게 : 독자의 신행상담에 대종스님이 답을 준다.

대형 인터뷰 : 만나고 싶었던 사람, 화제와 인물을 찾는다.

지상 법사 : 대역 스님들의 설법을 지상 중생한다.

다시 풀어쓰는 경전

불교속의 과학, 과학속의 불교 : 불교가 과학적 종교임을 영남대 김성규 교수가 쉽게 풀어준다.

소셜 슈미선 : 우주로 소재로 쓰는 고운 씨의 대 아삼작이 전면을 장식한다.

주부 신행담 : 주부들의 신행일기 코너

민화 법구경 : 법구경의 가르침을 민화가 이형원씨가 오늘의 대화로 재구성한다.

명사들이 추천하는 불서 100선

불심사실 : 한국 선사들의 계승에 스민사건과 불교적 가르침을 음미한다.

건강라이프 : 이근후 건강 칼럼등 현대인의 건강 길잡이를 실는다.

독자 토론 : 바른 신행을 위해 매일 독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코너.

지형스님 법화경 1천부 법공양 부산불교거사협회 초청법회서

부산불교거사협회가 주최한 「지형스님 초청법회」가 지난달 27일 오후 8시 동포사 부산포교원에서 5백여 불자가 모인 가운데 열렸다.

이날 법회에서 지형스님(창원 구룡사주지)은 「계달음의 길」이란 주제 설법을 통해 「참

된 성품은 밖을 향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며 진정한 보살행은 여러중생의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짊어지고 정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지형스님은 부산불교거사협회에 스님이 권역한 「묘법 연화경」 1천부를 법공양했다.

창립10주 기념법회 부산불교복지지상조회

부산불교복지지상조회(이사장 리기권)는 「창립 10주년 기념 대법회 및 효도위안 판단」을 10월 15일 오후 2시 구덕실내체육관에서 봉행했다.

화성 신흥사 포교·공로상 제정

조오근씨등 6명 수상 ... 상금 2천만원

16일 시상식

신흥사(경기도 화성 소재) 청소년수련원(원장 성일)은 개원 20주년을 맞아 포교대상과 공로대상을 제정하고, 오는 16일 오전 11시 수련원에서 시상식을 거행한다.

어린이, 청소년, 특수분야 교사들 대상으로 제정된 이 상의 첫 대상은 조오근, 정안석, 최영철, 정충찬, 이희숙, 최순덕 씨등 6명이 받게됐다.

포교 공로 4 부문에 1천만 원씩의 상금이 수여되는 이번 시상식의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어린이 지도자 부문 : 최우수상 천수은, 우수상 변병열의 1명 ▲ 청소년 지도자 부문 : 최우수상 한영옥, 우수상 김영효의 2명 ▲ 특수포교 지도자 부문 : 최우수상 박근호, 우수상 채수선의 3명

▲ 70~80년대 교사 공로 부문 : 금상 김득영의 2명

▲ 어린이, 학생회 출신교사 공로 부문 : 금상 정지용의 6명 ▲ 90년대 교사 공로 부문 : 금상 정원길의 2명

한편 단체 공로부문 대상에는 은석국민학교가 선정됐다.

「학림불교회관」개원 6백평 규모 상계동에 서울 신도심인인 상계동에 대형 단독 불교회관이 개원, 도심포교의 새 장을 열게됐다.

감사의 삼배를 올립니다

현대불교가 힘차게 첫걸음을 내 디었습니까. 그동안 보내주신 불자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성원에 감사의 삼배를 올립니다.

불교의 내일을 열어갈 현대불교는 매주마다 신선한 기획, 풍성한 읽을 거리를 불자의 글자, 신행의 기쁨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사랑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

1994년 10월 15일
현대불교신문사 직원일동

지역환경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는 기업

重工業立國의 開拓精神으로 이어져온 漢拏 32年の歴史

지난 1962년부터 우리나라 重工業發展을 先導해 온 漢拏가 10월 1日로 創立 32周年을 맞이했습니다. 漢拏는 重工業 不毛地나 다름없던 70年代初 처음으로 重裝備을 國産化, 國內供給은 물론 輸出을 해왔으며 사우디 아라비아 石油시멘트工場을 비롯하여 國內外에서 各種 工場을 턴키 베이스로 受注, 施工하는 등 남다른 技術力과 事業實績을 誇示해 왔습니다.

漢拏는 이제 造船, 自動車部品, 建設重裝備, 産業設備, 建設, 시멘트, 資源開發, 海運 등 重工業中心의 事業分野에서 豊富な 經驗과 最新 技術을 바탕으로 한 強力한 國際競爭力을 갖추고 世界를 活動舞臺로 하여 高度成長을 하고 있습니다. 漢拏의 事業場에는 해가 지지 않습니다.

環境保護를 最優先 課題로 삼고 人類福祉向上에 盡力하고 있는 漢拏는 希望찬 21世紀에 世界的인 超優良企業으로 躍躍한 前진을 하고 있습니다. 漢拏와 함께 "快適한 環境에서 豊饒를 누릴 人間의 꿈"을 實現합니다.

漢拏
(信賴와 創造)

한라중공업 · 안도기계 · 한라건설 · 한라시멘트 · 한라공조 · 한라자원 · 한라해운 · 한라레미콘 · 한라창업투자 · 캄코 · 마이스터 · 한라C & C · 한라제지 · 배달학원